

커지는 한국영화, 작아지는 관객의 선택

이 용 관 | 중앙대 교수

〈쉬리〉를 선두로 ‘덩치 큰 영화’들이 올해에도 꾸준히 성장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공동경비구역 JSA〉가 〈쉬리〉의 대기록을 훌쩍 넘어버리고, 서울 시내 극장가는 〈단적비연수〉와 〈리베라 메〉와 같은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어엿하게 할리우드 영화를 누르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최근에 한국영화가 할리우드의 흥행을 누르는 것은 신기해 할만한 일도 아니다. 규모만 있으면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흥행성적이 낫다. 그러나 영화라는 것이 산업적인 논리로서 모든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한국 영화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년 전 만 해도 20억원만 들이면 ‘블록버스터’라는 홍보문구를 붙일 수 있었지만 작년 후반의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40억대였다. 〈싸이렌〉, 〈단적비연수〉, 〈리베라 메〉 등이 40억을 넘어선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다. 제작중인 〈무사〉가 이미 순 제작비 50억원을 넘겨 마케팅비용까지 총 60억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개봉 또는 제작예정인 상당수의 작품이 50억대를 돌파할 예정이며,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들인 영화도 등장할 전망이다. 할리우드를 따라가기에는 어렵도 없는 숫자지만 한국의 경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어느새 한국 영화가 부쩍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작규모면에서, 국제적 인지도면에서, 작품의 수요면에서 한국 영화가 커진다. 올해 한국영화 해외 수출액이 두 배 이상 신장했다니 단순한 사탕발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모르겠다. 외관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 시스템이나 영화의 내용이 담보된 것이라고 말하기

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한국영화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쉬리〉를 선두로 ‘덩치 큰 영화’들이 올해에도 꾸준히 성장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공동경비구역 JSA〉가 〈쉬리〉의 대기록을 훌쩍 넘어버리고, 서울 시내 극장가는 〈단적비연수〉와 〈리베라 메〉와 같은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어엿하게 할리우드 영화를 누르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최근에 한국영화가 할리우드의 흥행을 누르는 것은 신기해 할만한 일도 아니다. 규모만 있으면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흥행성적이 낫다. 그러나 영화라는 것이 산업적인 논리로서 모든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한국 영화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치 도박 판처럼 점점 불어나는 영화관의 돈은 작품을 짓누르고, 흥행이라는 강박관념으로 감독을 짓누르고, 배급망을 휘어잡고, 무엇보다도 관객들을 작품의 질이

산업적인 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의 이야기 구조는 과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장점보다는 결점이 많다는 것도 문제 거리이다. <단적비연수>는 운명에 순종하는 부족과 저항하는 부족간의 쟁투가 벌어지는 고대를 배경으로 사각관계의 멜로가 펼쳐지고, 이야기는 오락가락하다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마감한다.

아닌 홍보전략으로 휘둘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년 남짓한 기간에 국산 영화의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블록버스터급 영화 몇 편에 관객이 몰리는 충무로의 모양새는 기형적이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한국 영화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말 서울 관객수는 성수기에 25만 정도였으나, <단적비연수>와 <리베라메>가 개봉된 주는 30만을 넘어섰다. 11월이 극장가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적은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덩치 큰 영화 한 두 편이 시장의 크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수치는 편식증에 가까운 한국 영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시장 점유율 상승이야 반가운 말이지만 작년의 <쉬리>와 마찬가지로 한 두 편의 영화를 통해 40%의 신화에 육박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다양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블록버스터 오락영화에만 관객이 몰리다보면 자연스럽게 밀리는 것은 실험영화들과 독립영화들이다.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독립영화제에 나가보면 관객들의 반응이 드러난다. 예년과 같은 독립, 단편 영화의 열기는 많이 누그러졌다. 언론에서의 관심도 크고 폄하는 것에 몰리지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스럽게 한국 영화의 몸 불리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낳는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같이 독립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은 상대

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 효과는 결과적으로 블록버스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대형 영화들은 점점 치솟는 제작비 상승에 휘청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과거처럼 도산하는 영화사가 속출할 것은 뻔하다. 스케일을 키운다고 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보장이 없고, 투자가 소수의 영화에만 집중돼 오히려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는 데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

내용의 부실화

산업적인 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의 이야기 구조는 과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장점보다는 결점이 많다는 것도 문제 거리이다. <단적비연수>는 운명에 순종하는 부족과 저항하는 부족간의 쟁투가 벌어지는 고대를 배경으로 사각관계의 멜로가 펼쳐지고, 이야기는 오락가락하다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마감한다. 좋은 소재의 선택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스토리에서 이와 같은 플롯이 나온 것은 하나의 비극이다. <리베라메>는 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정신적 상처를 지닌 연쇄 방화범과 소방관들이 불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영화다. 재난영화와 스릴러 장르의 혼합물인데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할리우드 영화의 관습을 따르면서 독창성을 잃어버렸다. 불구경은 그럴듯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전하는데는 실패했다. 최근 선보인 블록버스터들은 <공동경비구역 JSA>을 제외하고는 사정이 비슷하다. 내용의 탄실함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인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갖춰도 내용이 부실하면 언젠가 관객과 시장은 외면하게 되어 있다. 특히 올 여름 한국산 공포영화들의 모방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할리우드를 모범으로 삼는 풍토는 그 폐단이 심각하다. <가위>, <하피>, <찍히면 죽는다> 등 일련의 할리우드식 십대 공포 영화들은 <스크림>이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류의 공포물들을 적절히 패러디하였는데, 으시시한 한국 공포의 정서를 만들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기획영화라는 이름 하에 2,3년 전 할리우드에서 유행한 공포물을 환경만 바꿔 재탕하려는 심사는 우리 문화의 편향성을 돌아보게 만든다. 문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모방과 변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할리우드식 공포물을 기획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할리우드 따라잡기는 SF 블록버스터에서도 고스란히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조용히 올해 시작을 장식했던 심형래의 <2001 용가리>의 부활은 그 용기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작품으로 일관한다. 엄밀히 말해 <2001 용가리>는 <용가리>의 속편이 아니다. 줄거리도 등장인물도, 용가리의 열개도 그대로 유지한 채 80% 분량을 재촬영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데만도 35억 원이 들어갔다. 이 정도면 최근에 만들어진 한국형 블록버스터 한 편 값이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기술적인 측면을 알고 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최근에 개봉한 오시이 마모루의 <아바론>은 ‘도미노 락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디지털 화면을 만들어냈는데, 등장인물의 경우 7차례의 코딩 작업

을 통해 독특한 질감의 화면을 완성했다. <용가리>에도 같은 시스템이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두 영화의 질적, 양적 차이는 엄청나다. 한국 SF 영화의 표현 문제는 자본력과 장비가 아니었던 것이다. 장비를 활용하는 능력과 인력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내의 그래픽 영상과 디지털 기술은 CF와 같이 짧은 볼거리에서는 할리우드나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시간에 달하는 장편영화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가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좋은 장비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연출자의 능력과 노력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늘 말썽이 되는 한국산 SF의 시나리오에는 한 번도 우리를 감동시킨 적이 없다. 심심하면 비교 대상의 기준이 되는 스피버그의 <쥬라기 공원>만 해도 마이클 클라이튼이라는 인기 대중 소설가가 나름의 과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엮어 놓았다. <용가리>의 그림만 보면 그다지 우습지 않지만 엉성한 이야기는 캐릭터의 허점을 부각시키기 마련이다.

38억원에 달하는 제작비용을 투자한 <천사몽> 역시 이 공식을 되풀이한다. <천사몽>에 쓰인 미래 도시의 그래픽은 약간의 아량만 있으면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고심한 흔적도 역력하다. 문제는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였다. 홍콩 배우 여명을 투입해 국적 불명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건 영화니까 이해하고 봐달라’며 관객의 넓은 아량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시간 여행을 하는 기계를 타고 인간의 전생으로 들어간다는 설정부터 과학적인 상식이나 설득력이 부족함에도 등장인물들은 이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것만 모아도 최소한 5분은 줄일 수 있다.

영화 밖의 문제들

스타들의 몸값도 따져볼 일이다. <단적비연수>의 김석훈, 설경구, 김윤진, 최진실, 이미숙, <리베라 메>의 최민수, 차승원, 유지태, 김규리, 박상면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덕분에 몇몇 소형 영화들은 배우를 구하지 못해 제작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전체적으로 한국 영화 배우들의 기근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는 않지만 대형 영화가 히트함에 따라 영화의 주연 배우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은 영화들은 흥행을 지켜줄 담보 중의 하나인 스타들을 모시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당연히 큰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영화 시장에서 작고 가벼운 기획 영화들이 사라질 공간이 크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관객들이다. 현재 양분되어 있는 배급 시스템은 소수의 영화들을 점점 더 압박해 간다. <단적비연수>와 <리베라 메>의 두 영화의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는 현재 배급망의 자웅을 겨루는 두 업체다. 양대 배급사가 흥행스코어를 놓고 한판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바람에 난감했던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관객 수치를 속여 발표하는 가하면, 서울의 일부 멀티플렉스 극장시대에서는 스크린이 없어 다른 영화가 간판을 못 거는 상황이 속출했다. 멀티플렉스라는 이름

만 걸었을 뿐 서너 개의 작품이 열 개관을 모두 차지하는 진풍경은, 힘있는 배급사가 스크린의 태반을 점령 해버리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원리다. 영문도 모르는 관객은 ‘골라보는 재미’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중소 배급사가 영화를 개봉시킬 자리가 없어지면서 당연히 영화 선택 폭은 점점 좁아진다. 모든 관객들이 블록버스터를 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요즘 “카메라를 빌릴 수 없다”, “감독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행복한 비명이 들린다고 한다. 예년과 비할 수 없는 열기로 충무로가 후끈하다는 소리다. 조만간 불어닥칠 경제위기 덕분에 조금은 누그러드는 분위기이지만 돈이 몰린다고 한국 영화가 흥하란 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논리만 강조하다보면 한국 영화의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요령이지만 현실에 맞는 규모를 안착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지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작은 것들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